

우리는 잊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적에게 눌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추석에 우리가 나누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가 단순히 명절 행사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의 고백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백을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이렇게 응답해도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신앙을 더욱 굳게 세우고, 후손에게도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곧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찬송가 |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2.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3.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후렴>

한걸음 한걸음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주기도문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 감사예배

2025. 10. 6.

| 신앙고백 |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 찬송가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기도 | 맡은이

| 성경봉독 | 시편 136:23~26

23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4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5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설교말씀 |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믿음의 가정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감사의 시로 불립니다. 모든 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한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응답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 가정도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신앙을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하나씩 떠올리며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고백합니다(23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민족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3:16).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24절).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 죄의 유혹, 죽음의 두려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시고,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25절). 오늘 추석 밥상에 오른 음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햇볕과 비, 땅의 기온과 계절의 순환까지 모두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요 6:35). 우리가 밥을 먹어도 다시 배고프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됩니다. 추석에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내용을 열거하면서도, 반복해서 한 가지 이유를 강조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언약에 신실하신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헤세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풍년이 들어서만, 건강이 유지되었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삶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구원과 영원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추석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은혜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도, 건강을 유지한 것도, 믿음을 지킨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들을 헤아리는 감사에서 그치지 않고, 그 모든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